

조선후기 동학(東學)의 여성해방사상과 근대성* : 신분해방과 동학사상의 연계를 중심으로

김종욱(동국대)

이 글은 조선후기 신분철폐와 인간평등의 흐름을 살펴보고, 여성해방의 과정을 추적하여 조선 사회 내부에 근대화의 사상적 힘이 내재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특히, 1860년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에 의해 창도된 동학의 여성해방사상을 통해 신분해방 흐름과 연계된 근대성을 추적했다. 조선후기 여성해방의 흐름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결합된 백성의 성장, 백성의 성장을 수용하여 소민을 보호하고 언론을 확대한 계몽군주, 공자철학을 갱신한 동네 유자(儒者)들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마침내 동학에 이르러 인간평등, 신분철폐, 여성해방의 사상으로 나타났다. 조선 후기 백성들은 신분에 의한 불평등에 맞서 민란을 일으켰다. 이런 흐름 속에서 동학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철학을 일상에서 실천했다. 또한 앞으로 여성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여성해방사상을 백성들에게 전파했다. 이와 같이 신분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백성의 등장은 전근대와 근대를 가르는 기준이다. 신분해방의 시대가 열리고 나서야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은 시야에 들어온다. 그 지점에서 동학은 인간평등을 통한 신분해방, 그리고 신분해방과 연결된 여성해방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주제어 : 동학, 인간평등, 신분해방, 여성해방, 근대성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6492).

** 익명의 심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심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심사 덕분에 많은 부분을 확인하고 고민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정에서 채워나가기 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조선의 여성과 ‘근대’는 어떻게 만났을까?

동서양의 근대화 과정에서 인간평등·신분철폐·여성해방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근대화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는 지난한 과정이었고, 모든 인간은 동등하며 따라서 남녀는 평등하다는 인식은 근대의 산물이다. 여성들은 정치적 참정권의 획득부터 법·제도와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각종 억압의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 절박한 요구였다. 이 논문은 조선 후기 신분철폐와 인간평등의 흐름을 살펴보고, 여성해방의 과정을 추적하여 조선사회 내부에 근대화의 사상적 힘이 내재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특히, 1860년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에 의해 창도된 동학(東學)의 여성해방사상을 통해 신분해방 흐름과 연계된 근대성을 추적하려는 것이다.

동아시아지역 차원의 근대는 서양에 의해 이식된 것이 아니라, ‘낮은 근대(low modernity)’ 또는 ‘초기 근대(early modernity)’에서 ‘높은 근대(high modernity)’로 진보했다. 많은 연구들은 송대(宋代) 중국에서 진행된 변화를 ‘보편사적 근대의 시작’으로 규정한다(William H. McNeill 1982, 30; 內藤湖南 2004, 191-201; Josua A. Fogel 1984, 168; Eric I. Jones 1988, 73-84; Jürgen Osterhammel 1989, 50). 그 근거는 탈(脫)신분적 인간평등, 공무원임용고시(과거제), 군현제적 중앙집권제와 운하·도로망을 바탕으로 한 통일적 국내시장과 표준적 시장경제원리가 세계 역사상 최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황태연 2018, 43-44). 따라서 ‘보편사적 근대’는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이미 조선사회에 송대(宋代)의 근대적 문명이 전파·적용·진행되었다. 이는 조선사회도 ‘낮은 근대’ 또는 ‘초기 근대’를 지나 ‘높은 근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다.

문명·문화 간에는 패치워크(patchwork) 방식을 통해 교류하고, 새롭게 갱신된 문명·문화를 만들어간다. 더 좋은 문명을 패치워크하여 갱신된

문명을 만들어어나가는 개방성이 문명의 주요한 발전 방식이었던 것이다. 또한 “모든 문명은 아무리 많이 패치워크 했을지라도 고유한 전통적 이해 방식, 편견, 풍토, 기법, 실, 접착제, 바탕이 ‘내적 공통문법’으로 존재”한다(황태연 2011, 46). 우리의 전통적 이해방식이라는 ‘내적 공통문법’을 통해 패치워크된 우리의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신분철폐를 통한 인간평등, 인간평등의 확장으로서 여성해방사상의 탄생도 이런 문명·문화의 패치워크를 통해 진행되었다. 공자철학의 ‘인간평등론’, 송대부터 시작된 과거제를 통한 신분철폐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이 조선사회에 스며들어 확산되었고, 동학에 이르러 ‘급진적’ 방식의 인간평등과 여성해방의 사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은 고종의 신분철폐 조치와 연결되었고, 여성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진전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조선후기 동학의 여성해방사상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해서 조선사회 근대화의 내재적 힘을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조선사회가 ‘낮은 근대’에서 ‘높은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사상적 흐름이 결합하여 인간평등과 여성해방의 사상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적할 것이다.

제2장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론적 틀로서 ‘공감 해석적 접근’과 ‘일상사적 접근’을 제시하고, 조선후기 신분해방과 여성해방의 결합 양태를 추적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의 주요한 변화를 설명한다. 제3장은 동학의 인간평등과 신분해방사상을 살펴본다. 제4장은 동학의 수운 최제우와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의 여성해방사상을 분석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여성해방의 사상적 흐름을 고찰하고, 동학의 근대성을 추적함으로써 조선사회 내부에 이미 여성해방의 사상적 힘이 내재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2. 조선후기 여성해방과 동학에 대한 접근

1) 선행연구 검토

동학의 여성해방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종속적 지위에 있는 부인을 주인의 위치로 올려 주인의식을 갖게” 한 것을 “성의 혁명이요 유교질서 사회의 대변혁”으로 보는 견해(朴容玉 1981, 128)와 단지 가사노동과 여성의 가정 내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강조하여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김경애 2003, 96)로 대별된다. 또한 “해월시기 여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유교적인 인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에 가정 내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놓여 있던 부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그 범위가 중하층의 여성들에게까지 해당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는 여성을 주체적 인격체로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절충적 평가도 있다(김미정 2006, 370). 동학을 여성의 인격존중과 여성해방사상으로 보는 연구들(김용덕 1979; 황묘희 1998; 김정인 2002; 최문형 2005; 조경달 2008; 양삼석 2012; 조극훈 2017), 동학농민전쟁 기간 여성들의 전쟁 참여에 대한 채록, 인터뷰 자료 등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 연구(김정인 2002; 채길순 2015; 박상란 2015, 2017a, 2017b), 현재적 의미에서 동학 여성관의 재해석 연구 등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이 글에서는 동학의 여성해방사상의 출현이 조선후기 백성의 성장과 이에 호응한 국왕의 ‘민국정체(民國政體)’에 의해 신분철폐가 착수되었고,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개벽사상(開闢思想)’의 전승과 동학이 결합하여 신분과 남녀의 차별이 없는 인간평등사상으로 정립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동학농민전쟁을 통해 신분해방과 여성

해방의 실천적 강령으로 현실에서 작동되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는 동학에 의해 여성해방사상이 주창되었으며, 조선사회 내부로부터 근대화의 사상적 동력이 준비되었음을 방증(傍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성이 남성, 이성 중심적이라는 비판, 획일적 ‘평등’으로 인한 ‘차이’의 부정, 다양성보다는 특정 기준에 입각한 강제적 보편화 등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탈근대적 비판(주디스 버틀러, 2008; 박이은실 2010, 261-262; 조선정 2014, 61-62; 김양선 2007, 62; 이광래 2007, 247) 속에서 동학의 여성해방사상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는 중요한 논의과제라 판단된다. 초기 페미니즘의 남성과 가부장적 권력에 대한 비판, ‘제2의 물질로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에 대한 비판, “인종과 계급, 성 정체성 등을 축으로 하여 다양한 층위로 드러나는 ‘여성’ 내의 차이들(윤조원 2009, 131)”을 무시했다는 비판은 페미니즘도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갔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적 관점에서 동학 여성해방사상의 한계는 비판 가능하나, 당대 신분에 의해 억압받았던 백성과 이중적 억압에 처했던 여성들에게 신분철폐와 여성해방의 담론·실천은 시대의 경계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동시에 구한말과 식민지 시절 천도교를 필두로 하는 여성운동과 여권신장 등의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1924년 4월 조직된 천도교 여성단체인 내수단(內修團)의 주옥경은 “우리는 결코 현하 사조에 의지하여 남들이 여권을 주창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신사께서 무극대도를 각득하시던 그날부터 남녀의 구별이 없고 장유의 차별이 없이 절대평등을 말씀하셨으며, 또 해월신사께서는 우리 교의 흥망성쇠가 오직 부인 내수도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여자 한 명이 남자 천명을 살린다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김응조 2005, 98-99. 조극훈 2017, 12에서 재인용)”라고 주장했다. 주옥경의 동학 해석은 인간평등으로부터 신분철폐와 남녀평등을 도출하고, 여성주

체의 젠더(gender)적 실천까지도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감 해석적 접근’과 ‘일상사적 접근’

당대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활자 이외의 것들에 대한 교감과 공감의 부재는 역사적 사실을 텍스트만으로 이해하게 하는 한계를 발생시킨다. 역사는 텍스트로는 담을 수 없는 활자 이외의 것들과 역사적 사건의 과정에서 전개된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희로애락(喜怒哀樂)도 녹아 있다. 따라서 텍스트화 되는 맥락에 대한 ‘공감적 해석’이 필요하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텍스트의 언표에 담긴 감정적 의미연관, 화자의 표정과 대화상황의 정서적 분위기, 텍스트의 필자와 독자(화자와 청자)를 포괄하는 사회적·전통적·역사적 공감대 등을 무시하고, 말과 문장의 어의(語義)에 매여 필자나 화자의 수사적 설득 전술과 언변술, 허언과 실언, 과장과 축소, 언어 행위적 오류와 오해, 왜곡과 작화, 어줍지 않은 이해 등을 소홀히 한다(황태연 2017a, 29).”

일본이 명치유신을 통해 새로워졌으니 우리도 일본을 조선에 끌어들이 유신을 하자는 생각으로 일본의 경복궁 침공과 고종의 ‘사실상의 감금’도 용인하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감대와 무관하게 일본과 같이 근대화하자는 언어적 의미에만 매달린다면, 친일파들은 근대화론자들로 둔갑한다. 그래서 ‘갑오경장’을 추진한 친일파들의 행각에 문제는 있지만, 그들이 최초로 근대화를 추진했다며 ‘면죄부’가 발부된다. 그러나 ‘갑오경장’의 반근대적 사이비개혁의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대 백성들이 ‘갑오경장 내각’에 대해 극도의 반감과 분노를 가졌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된다면, 이들에 대한 ‘면죄부’는 폐기될 것이다. ‘아관망명’ 직후 고종이 ‘김홍집 친일내각’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을 때, 서울의 백성들이 김홍집과 정병하를 탈취해 격살해버렸다. 이는 당시 백성들

이 ‘김홍집 친일내각’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공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갑오경장’을 조선사회의 근대화 조치로만 이해하고, 당대 백성의 민심과 공감하지 못하면 이 행동에 대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특정 시점의 역사에 대한 해석에 있어 당대의 일정한 공감대(共感帶)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역사에 대한 ‘공감적 해석’은 텍스트 이외의 것들에 대한 교감과 공감, 역사적 사건에서 벌어진 국민의 ‘파란만장한’ 희로애락을 공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판적’이다. 즉, 백성의 기쁨과 고통, 즐거움과 괴로움, 도덕 감정, 도덕적 비난 등의 제반 감정에 공감하는 관점에서 사료를 해석하고 역사를 서술한다. 당대의 역사적 사건들이 백성의 공감대로서의 민심의 발로라면, 그것은 백성이 느끼는 당대의 감정이다(황태연 2017a, 40). 또한 말의 어감, 언어적 뉘앙스(nuance)에 따라 발화자와 필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은 청자와 독자의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해석자가 발화자와 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자는 그 진의(眞意)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공감적 해석’이 필요하다. 일레로 임진왜란 이후 백성들이 국가와 왕, 관리와 사대부들에게 느꼈을 배신감과 박탈감이라는 백성의 공감대는 조선 후기 내내 거대한 ‘민압(民壓)’으로 나타났고, 19세기에는 ‘민란(民亂)’으로 표출되었다.

본 논문은 ‘공감적 해석’을 통한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일상사적 접근’도 병행한다. 역사적 사실은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日常)적 삶의 누적이라 할 수 있다. 일상의 반복은 ‘사건사(事件史)’로 연결되어, 시대사로 드러난다. 이러한 일상과 사건의 누적이 역사로 기록된다.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는 “시대가 규정하는 구조의 틀 속에서 사람들이 체제의 요구에 어떻게 적응하고 저항하며, 무엇을 수용하고 거부”했는지를 밝히고, “동시에 일상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행위들이 체제와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구성”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이유재·이상록 2006, 29). 이

런 접근은 ‘아래로부터’의 역사, 즉 익명인 다수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분제의 불평등과 국가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권력이 부과한 기존질서의 골격을 재채용(re-emploiement)하고 내부적 변형을 가하며 일상적 투쟁과 저항을 실천”했다. 이 과정은 “지배집단이 부과한 체계를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무한히 변환하고 적응하는 ‘전유(appropriation)’의 과정”이었다(장세룡 2002, 206-209). 불평등과 억압의 대상인 대중들은 저항적 행위와 연대적 모의를 통해 지배의 의도를 ‘전유’하거나 저항하는 방식을 통해 ‘일상의 정치’ 영역을 구축한다. 지배에 대항하는 바로 이들의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의지가 조선사회 근대화의 사상적 힘이었고, 근대의 경계를 넘어가는 동력이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과 운동을 기술하는 것은 일상의 반복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완결될 수 없다. 일상생활의 지속적 누적에 의해 사건사와 시대사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이해와 해석에 반영되어야겠지만, 무미건조한 일상생활, 일시적 유행과 풍조에 따른 일상행동,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 같은 풍토 지리적 사건들까지 기술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역사적 사건과 운동에 영향을 미친 일상생활의 변화를 무시한 것으로 모두 용도 폐기할 수는 없다. 모든 역사적 사건과 운동이 시대사적 맥락과 사상사적 맥락의 결합 속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시대사와 사상사의 결합이 없는 역사는 ‘영혼 없는 역사’이거나, ‘역사 없는 사상’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대사적 맥락의 사건과 운동을 배태시킨 일상사의 변화과정에 대한 추적, 동시에 사람들의 사상적 변동과 충격을 발생시켰던 일상사의 변화과정에 대한 추적도 필요하다.

3) 조선후기 신분해방과 여성해방의 결합 양태

조선후기 여성해방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세 가지의 측면에서 조선사회의 변화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성해방이 조선사회의 사상사적 흐름과 현실 제도적 측면, 백성의 사유세계의 변화 속에서 진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화’는 “신분질서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고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개인들의 연대적 공동체”를 기준으로 볼 수 있다(황태연 2016, 122). 신분해방의 시대가 열리고 나서야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은 시야에 들어온다. 그런 차원에서 공자철학을 시대에 맞게 갱신한 동학은 신분철폐를 넘어 여성해방의 근대적 이행을 알리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공자철학의 새로운 갱신을 통한 신분철폐, 인간평등 사상을 전개한 동학의 새로운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자는 “천하에 나면 서부터 귀한 자는 없다(天下無生而貴者也)”는 인간평등론(『禮記』, 「郊特牲 第十一」)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유방본(民惟邦本)을 주장했다(『書經』, 「夏書·五子之歌第三」). 맹자도 “백성은 귀중하고 임금은 가볍다(民爲貴 君爲輕)”는 ‘민귀군경론’을 주장했다(『孟子』, 「盡心下」). 서양에서 인간평등은 근대에 들어와서야 가능한 논변이었다. 17세기 말 로크는 “어떤 인간도 자유롭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노예로 태어났고 우리는 계속 노예이어야 한다”고 했다(John Locke 2009, 142). 그도 신분제를 인정하고 불평등을 용인했다. 서양은 미국의 독립(1776)과 프랑스혁명(1789)에 이르러서야 인간평등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조선의 성리학적 사대부들은 완고한 신분주의자들이었으며, 실학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반계(潘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은 “신분이라 하는 것은 본래 귀천의 등급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다시 귀천은 본래

현자와 우자의 구분에서 나왔을 따름(柳馨遠 1994, 181)”이라 했고, 정약용(丁若鏞, 1762~1836)도 “족(族)에는 귀천이 있으니 마땅히 그 등급을 변별(정약용 1989, 334)”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무명의 일반유자(儒者)들에 의해 신분철폐와 인간평등의 사상이 퍼져나갔다. 이들은 오직 공맹의 기본경전만 읽어서 성리학적 학풍에 찌들지 않은 자유로운 ‘동네유생들’이었다(황태연 2018, 272-273, 366-368). 이들은 공맹철학의 원전에 입각한 사유세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신분질서를 옹호하는 성리학자들·실학자들과 달리 신분철폐와 인간평등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동학은 성리학적 신분제를 거부하고 신분철폐, 인간평등을 주장한 것이다.

둘째, 근대화가 사상적 측면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것, 제도적으로 신분철폐를 실천하는 것이라면, 백성의 압력에 대한 국왕의 수용과 동학을 중심으로 한 백성의 신분철폐 투쟁으로 나타난 것이 인간평등과 신분해방이었다. 18세기 조선사회의 농업생산력 증대와 상공업 발달은 신분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비는 축소되고 양반이 증가하면서, 백성의 힘은 강화되었다. 조선시대 내내 신분차별 없는 해방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백성의 염원은 면면이 이어졌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신분적 차별과 지배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은 백성들에게 절실했고, 이 염원은 ‘개벽사상(開闢思想)’으로 나타났다.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희망했으며, 그 세상을 가져올 진인(真人)의 출현을 갈망했다(노길명 2008, 200). 개벽사상은 현재적 압제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백성의 삶과 사상이 응축되어 있었다.

이에 영·정도는 민압을 수용하여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려 했고, 그것이 바로 ‘민국정체’다(이태진 2005, 194; 한영우 2010, 391-397; 황태연 2018, 571-655). ‘민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의식은 18세기에 발전했으며,

국왕은 사대부가 아닌 백성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운영되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다. 영조는 소민(小民)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했고, 백성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격쟁(擊箏)과 상언(上言)을 확대했다. 노비의 근대적 임금노동자(雇工)로의 전환을 위해 노비제도 혁파를 추진했으며, 서얼통청(庶孽通淸)·서얼허통(庶孽許通)의 확대를 통해 신분적 차별을 축소했다. 정조는 영조의 뜻을 이어 서얼허통의 확대, 상공업 세력의 육성 등을 통해 시민세력의 출현을 기대했으며, 국왕과 백성의 결합을 통한 ‘봉건 세력’에 대한 견제와 이를 통한 정치·사회개혁을 시도했다(김용흠 2006, 200-201). 이러한 흐름은 1801년 순조의 내노비(內奴婢)와 시노비(寺奴婢)의 해방으로 나타났다.¹⁾ 1882년 고종은 서북인(西北人), 송도인(松都人), 서얼(庶孽), 의원(醫院), 역관(譯官), 서리(胥吏), 군오(軍伍)들도 현직(顯職)에 통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재등용의 문을 넓히고 신분의 벽을 부분적으로 허물었고,²⁾ 뒤이어 인재등용에 있어 귀천의 구별을 두지 말 것을 유시(諭示)했다.³⁾ 그리고 1886년 고종은 절목(節目)을 공포하여 노비 해방을 단행했으며,⁴⁾ 1898년 대한제국 시기에는 인재 등용의 모든 차별을 철폐했다.⁵⁾

셋째, 향촌지배구조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한 백성들은 상언과 격쟁, 민소(民訴)와 민장(民狀)을 통해 국가에 압력을 가했고, 급기야 임

1) 『純祖實錄』 순조 1(1801)년 1월 28일

2) 『高宗實錄』 고종 19(1882)년 7월 22일

3) “지금 통상(通商)과 교섭(交涉)을 하고 있는 이때에 관리나 천한 백성의 집을 막론하고 다 크게 재화(財貨)를 교역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치부(致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농(農)·공(工)·상(商)의 자식도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다 같이 진학하게 한다. 오직 재학(才學)이 어떠한 가만을 보아야 할 것이요, 출신의 귀천(貴賤)은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高宗實錄』 고종 19(1882)년 12월 28일.

4) 『高宗實錄』 고종 23(1886)년 3월 11일.

5) “초야에 숨어 사는 빈한한 선비라도 진실로 한 가지의 재주와 한 가지의 능력이라도 시무(時務)에 적합하다면 의정부(議政府)에서 모두 등용함으로써 짐이 목마른 듯이 잘 다스리기를 구하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라.” 『高宗實錄』 고종 35(1898, 광무2)년 6월 25일

술민란과 동학농민봉기 등의 민란(民亂)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요구했다. 이 흐름은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弊政改革) 12개조’에 신분철폐와 여성해방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등장했다(吳知泳 1940, 126-127). 이처럼 신분철폐는 백성들의 강력한 열망과 실천, 그리고 국왕의 수용에 의해 가능했다. 신분철폐와 청춘과부 재가 허용은 시대적 과제였고, 동학이 주장함으로써 사회의 핵심의제로 등장했다.

18세기 조선사회에서 준양반의 지위를 획득한 부류는 각자의 지위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추구했고, 평민과 천민들은 지역공동체의 질서에 의해 제약받는 신분의 장벽을 벗어나려고 행동했다. 18세기 후반부터 민중의 결집체로서 ‘향회’가 중심으로 등장했고, 동시에 ‘요호(饒戶)층’이 확대되었다. 향회는 민의 새로운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초기에 향회는 단순히 여론의 참작 정도에서 비롯되었지만 점차 지방통치의 대부분을 수령이 향회의 논의나 동의하에 수행해야 할 만큼 그 기능이 다양해지고 역할이 커졌다(안병욱 1987, 154-156).” 향회는 사대부나 양반만의 전유물에서 서얼과 중인, 평민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성격이 변화되어 갔다. 이 향회는 19세기 농민항쟁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주도세력은 소민이었으며, 백성들의 여론을 모으는 민회적 성격으로 변화되었다(이영재 2015, 94).

이렇듯 조선사회에서 신분철폐와 여성해방은 동학에 의한 공자철학의 새로운 갱신, 국왕의 민압 수용과 신분철폐 조치, 동학을 중심으로 한 인간평등과 여성해방 추진에 의해 실천되었다. 신분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백성의 등장은 ‘낮은 근대’에서 ‘높은 근대’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증표다. 이 자유롭고 평등한 백성은 최초로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남성의 등장으로 시작하여 여성으로 점차 확대된다. 일거에 남성과 여성이 자유롭고 평등한 백성으로 등장한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조선사회에서 여성해방은 신분차별 철폐 이후에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다.

3. 동학의 인간평등과 신분해방 사상

조선사회에서 인간평등과 여성해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한 것은 동학이었다. '서학'의 부분적 영향도 있었지만, 동학은 여성해방에 대한 혁명적 근대성을 담고 있었다. 동학은 역성혁명적 왕조교체설의 개혁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며, 민중이 갈구하는 신분해방·인간평등의 세상을 주창했다. 이후 서서히 일군만민체제(一君萬民體制)의 이념이 담긴 순수한 국왕중심주의인 '신존왕주의(新尊王主義)'의 영향을 받았다.

'신존왕주의'는 대외적으로 "임진·병자양란에 대한 기억 속에서, 그리고 영불연합국에 의한 북경합락(1860)과 이양선의 출몰로 표현된 서세동점의 문명위기 속에서 중국·일본·서양에 대한 강한 방위의식"과 대내적으로 "임금의 눈귀를 막고 제 이익을 취하는 데 급급한 중앙과 지방의 세도가적 권귀(權貴), 즉 수령·이향과 세도기들의 세도정치를 배격"하는 "반상·적서·양천, 나아가 중앙사족과 향촌사족, 권문세가와 일반사족의 차별을 낳는 봉건적 신분제도"의 철폐라는 신분해방의 열망이 결합된 것이었다. 따라서 '신존왕주의'를 통한 왕권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각종 신분차별의 철폐로 귀결된다(황태연 2017a, 158-159).

1) 동학의 인간평등사상

이러한 신분해방과 인간평등의 흐름은 동학으로 이어졌다. 수운 최제우는 '한울남'은 "자기 안에 모여져 있는 존재이므로 신분과 남녀노소의 구별과 차별 없이 누구나 동학의 가르침대로 수련하면 한울남과의 일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최문형 2005, 215). 그는 「교훈가」(1861)에서 "부하고 귀한 사람 이전 시절 빈천이오 빈하고 천한 사람 오는 시절 부귀로세"라며 신분 차별 없는 인간평등 세상의 도래를 얘기했다(표영삼 2004, 151-156).

동학교도들 간에는 신분차별도 남녀차별도 없었다. 「도남서원통문(道南書院通文, 1863.12.1.)」은 “하나같이 귀천의 차등을 두지 않고 백정과 술장사들이 어울리며 얽은 휘장을 치고 남녀가 뒤섞여서 흠어미와 흠아버가 가까이 하며 재물이 있든 없든 서로 돕기를 좋아하니 가난한 이들이 기뻐한다(一貴賤而等威無別 則屠沽者往焉 混男女而帷薄爲設 則怨曠者就焉 好貨財以有無相資 則貧窮者悅焉)”고 적혀 있다(崔承熙 1986, 440). 동학교도들은 귀천·빈부의 차등을 두지 않고 서로 어울리고 존중했으며, 남녀도 상호 존중했다.

수운의 뒤를 이은 해월 최시형은 인간평등의 차원에서 신분철폐와 적서차별 철폐를 강조했다. 수운 선생의 탄신기념일(1865.10.28.)에 해월은 “인(人)이 내천(乃天)이라. 고로 인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나니 인이 인위로써 귀천을 분(分)함은 한울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니라. 우리 도인들은 일체 귀천의 차별을 철폐토록 하여 스승님의 본뜻에 따르도록 하자”고 촉구했다(『天道教書』 1962a, 220). 또한 수운 선생이 돌아가신 제2주기(1866.3.10.)에 해월은 “양반과 상놈을 차별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이고, 적자와 서자를 구별하는 것은 집안을 망치는 일이니 우리 도인들은 앞으로 적서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天道教書』 1962a, 220).

동학을 창도한 수운부터 해월까지, 인간평등, 신분철폐, 여성해방은 동학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었다. 1891년 3월, 김낙삼(金洛三)이 호남 좌우도 16포(包) 도인 100여 명을 인솔하고 해월에게 호남좌우도 평의장을 노비 출신인 남계천(南啓天)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해월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도(吾道)는 5만년(五萬年) 개벽(開闢)의 운(運)을 승(乘)하여 무극대도(無極大道)를 창명(創明)한지라. 문지저양(門地低昂)과 노소등분(老小等分)은 국견(局見)의 미습(迷習)이니 어찌 논(論)하리오. 비록 문지가 비장(卑徵)한 자(者)라도 두령(頭領)의 자격(資格)이 유(有)하면

그 지휘(指揮)를 일준(一遵)하여서 도리(道理)를 창명(彰明)함이 가(可)하리라(『天道敎書』 1962b, 302).

문벌을 따지거나 노소를 나누는 것은 짧은 생각의 나쁜 악습이니 논할 이유가 없고, 능력과 자격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두령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수운의 뜻에 따라, 수운의 순도(殉道) 이후 해월은 인간평등·신분철폐·여성해방을 공표했으며, 1891년에 다시금 반상차별과 적서차별 등 신분차별 철폐와 인간평등 및 여성해방을 천명했다.

동학의 근대적인 해방의 관점은 유럽과 비교해도 절대 뒤쳐지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빠른 시점에 근대의 해방정신을 담고 있었다. 조선의 역사에서도 고종의 조치보다 20여년 앞선 것이며,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1894년 ‘갑오경장(갑오사이비개혁)’보다도 30여년 이상 앞선 것이다. 신분차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조의 유언을 실천한 1801년 순조의 ‘공노비해방’ 조치 이후, 60여년 만에 동학에서 신분해방의 가치를 집단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서재필(徐載弼, 1864~1951)의 자서전에서 서도 동학의 신분해방의 모습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의 [최제우·인용자] 앞에는 양반도 없고, 상놈도 중인도 백정도 종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제자들 간에는 귀천의 계급이란 조금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로 평등이요, 서로 형제였다. 계급제가 엄격하던 그때에 상놈이 양반과 만나 서로 절을 하고 서로 형제라 부르며 서로 ‘하우’를 하니 될 말이냐고 비난 공격이 많았지마는, 오랫동안 양반계급에 놀리어 살던 그들에게 그러한 공격쯤은 당초부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김도태 1972, 208).

2) 동학농민전쟁과 신분해방

동학의 인간평등, 신분철폐, 여성해방은 동학농민전쟁으로 이어졌다.

1894년(음력 4월 9일) 고창현에서는 동학교도 수천 명이 감옥을 부수어 죄수를 석방하고 무기를 빼앗았는데, 특히 호적 서류를 약탈했다(황현 1994, 83). 호적을 약탈했다는 것은 신분 기록을 없앴다는 것으로 당시 농민봉기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분철폐였음을 알 수 있다.

동학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성들은 동학이 봉기하여 모든 해독을 없애준다는 이야기, 동학농민군에 의해 성과 고을이 함락된 것에 대해 기뻐했다. 여기에 더해 동학이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져도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니(황현 1994, 97), 당시 동학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와 신뢰를 알 수 있다. 동학농민군은 ‘폐정개혁안’을 통해 새로운 해방의 세상을 요구했다. 특히, 신분철폐를 통한 평등 세상에 대한 희구는 대단했다.

“노비와 주인이 함께 입도한 경우에는 또한 서로를 접장이라 불러 마치 벗들이 교제하는 것 같았다. 이런 까닭에 사노비와 역참에서 일하는 사람, 무당의 서방, 백정 등과 같이 천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라 추종하였다.” 또한 “부자들을 위협하고 양반을 모욕하고 관리를 꾸짖고 욕하며 구실아치와 군교들을 결박”하는 등 ‘쌍인 원한과 굴욕’을 마음껏 풀어냈다. 그래서 “오직 양반들만이 죽는 한이 있어도 들어가지 않았고, 동학을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황현 1994, 129-130).”

따라서 ‘폐정 개혁’의 요구를 당시 ‘김홍집 친일내각’에서 대폭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군국기무처는 처음에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개혁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민심을 수습코자 했다.…군기처의 의안 중 20여 건은 바로 재기(再起)한 동학농민군의 회유 및 진압책과 관련된 것이다. 군기처는 갑오경장 초두에 일련의 평등주의적인 사회개혁을 선언함으로써 민심을 수습코자 했다(柳永益 1997, 147).”

‘김홍집 친일내각’의 군국기무처에서 당시 상황 수습을 위해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수습책을 통해 사태를

무마하려고 했다. ‘김홍집 친일내각이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신분해방·과녀(寡女) 재가 자유허용 조항을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 즉 오지영의 『동학사』에 실린 ‘폐정개혁 12개조’의 반상·천민신분·노비해방 및 청춘과부 개가 허용 조항들을 가져와 갑오경장의 개혁의 안에 반영했다는 말이다(황태연 2017a, 299-300).” 따라서 동학과 동학농민군이 조선의 근대화를 추동한 근본적 힘이었음은 ‘김홍집 친일내각’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백성들이 신분철폐와 여성해방을 통해 인간평등의 세상을 요구한 것은 ‘시대정신’이었으며, 근대화의 사상적 힘이었던 것이다.

동학농민전쟁 기간 동안, 노비들은 주인을 ‘협박’하여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면천을 강요했고, 양반들은 화를 피하기 위해 노비문서를 불태웠다. 노비문서를 불태우는 등의 행동은 단지 분풀이 방식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정이나 재인들 또한 평민이나 양반과 더불어 평등한 예를 행”했다는 것에서 동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다. 이들은 “서로 대하는 예가 매우 공손하였으며 신분의 귀천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평등한 예”로 대했다(황현 1994, 231-232).

그러나 동학과 백성에 의해 만들어진 근대화는 ‘김홍집 친일내각’에 의해 반동화되었다. 즉, 1894년 8월 10일(양력 9월 10일)에 발표한 ‘관문(關文, 하달공문)’을 통해 개혁조치라고 스스로가 주장했던 공사노비제의 혁파와 인신매매금지 조항은 유명무실화되었다. 관문을 내건 이유는 ‘김홍집 친일내각’의 입장에서 노비들의 신분철폐투쟁이 지나치게 발생할 것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노비제를 일절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할 것”이라는 1조는 곧 체휼지(體恤之意)였다. 이는 양민을 눌러 천민으로 만들어 세세토록 노비역을 지게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고, 일찍이 팔린 자들(曾所販賣者)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근일 세간에서 무뢰배들이 그 본의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켜 반상이 서로 어긋

나 사류(士流)가 그 체모를 보존할 수 없고 서민이 감히 상민의 분수를 범한다...노비가 주인을 능멸하는 것이 허다하다는 것과 패륜행동의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이다 (『關草存案』 1992[甲午 八月十日], 218-219).

개혁조치라고 주장했던 신분철폐는 ‘관문’을 통해 스스로 허구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반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은 ‘무뢰배’로, 주인을 능멸하는 노비는 ‘패륜’으로 규정했다. 노비제도를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소위 ‘갑오경장’의 신분철폐 등을 통한 개혁조치는 조선사회의 근대화가 아니라, ‘김홍집 친일내각’에 의한 반개혁적 조치였다.

이러한 왜곡 조치를 바로잡고, 신분철폐를 확실하게 실천한 것은 대한제국 시기 고종에 의해서였다. 따라서 신분철폐는 고종이 1880년대부터 추진해온 노비해방과 동학농민군의 신분해방 운동으로 이어져, 대한제국 시기에 완성되었다. 특히, “광무 연간의 실질적 신분해방조치와 탈신분적 공직등용 정책 덕택에 대한제국기에는 서자나 중인, 병졸과 하급 장교, 변방의 양민·천민 출신들이 명문가문 후예들을 밀쳐내고 근왕직(勤王職)에 참여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황태연 2017b, 591).

4. 동학의 여성해방사상

1) 수운의 여성해방사상

수운은 득도 이후 최초의 포교대상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다. 또한 수운은 자신의 여종 두 명을 며느리와 수양딸로 삼아 인간 평등을 몸소 실천했다. 이런 실천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동학이 남녀 모두를 평등하게 한울님으로 보는 것에 근거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성포교와 여성해방

문제를 중시했다. 수운의 ‘가화론(家和論)’은 “인간 도리의 근본은 부부를 둘러싼 가족에서 출발되는 것이며 부부는 어디까지나 서로 협조하는 수평적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교적 속박 속에서 억눌려왔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했다. 여자에 대한 포화와 압제의 상징이었던 시부모와 남편으로부터 한울님 모시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부녀들도 일도(一道)하여 수련하기만 하면 도성덕립(道成德立)의 군자가 될 수 있다는 평등관을 갖게 했다. 이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위대한 각성이며, 또한 여성해방의 높은 기치이기도 하다(박용옥 2001, 147-150).”

수운은 여성에 대한 동학의 포덕을 강조했다. 「안심가」(安心歌)에서 “거룩한 내 집 부녀 이 글 보고 안심하소…거룩한 내 집 부녀 자세보고 안심하소(표영삼 2004, 143-147)”라며, 여성을 ‘거룩한’ 존재로 격상시켜 여성에 대한 포덕을 중시했다. 또한 여성들이 글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수운은 그의 양딸이 된 주씨(朱氏)에게 “늘 글을 배워라”라고 얘기했다(金起田 1928, 16. 김경애 1984, 176에서 재인용).

이와 함께 수운은 「도수사」(道修詞, 1861년)에서 “수신제가 아니하고 도성입덕 무엇이며 삼강오륜 다 버리고 현인군자 무엇이며 가도화순(家道和順) 하는 법은 부인에게 관계하니 가장이 엄숙하면 이런 빛이 왜 있으며 부인 경계 다 버리고 저도 역시 괴이하니 절통코 애달하다”라며,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새로운 자세와 태도를 주문하고 있다(김용휘 2012, 215). 가도의 화순에는 부인의 역할이 크며, 도를 얻기 위해서는 가화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남편들이 성의를 다하여 부인을 공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황묘희 1998, 107). 즉, 수운의 여성관은 “사회의 제반 구조에서 소외당했던 여성들의 고통을 남성들이 자각케 하여 여성도 평등한 인간으로서 가족의 중심 구성원이며, 무엇보다 여성의 평온은 곧 가화의 근본이 됨을 인식하는 것(김미정 2006, 366)”이다.

이처럼 수운은 부녀와 그 외 농민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사체의 ‘안심가, ‘교훈가, ‘도수사 등을 순 국문으로 지어서 널리 읽히게 했다(朴容玉 1981, 120). 이런 노력으로 동학을 포교한지 3년 만에 “경주(慶州) 부근읍(附近邑)에서는 비록 점사(店舍)의 부녀(婦女)나 산곡(山谷)의 아동(兒童)까지라도 시천주(侍天主)를 염통(念通)치 않는 자(者)가 없다(吳知泳 1940, 20)”고 할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이것은 평범한 여성들도 동학의 사상을 접하고 여성도 한울님이라는 생각의 변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2) 해월의 여성해방사상

여성해방의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실천한 것은 해월이었다. 1867년 “나는 비록 부인(婦人) 소아(小兒)의 말이라도 또한 배울 것은 배우며 좃길 것은 좃나니 이는 모든 선(善)은 다 천어(天語)로 아미니라”라며, 인간평등뿐만 아니라 여성해방과 어린이존중까지 제기했다(吳知泳 1940, 45). 『해월신사법설(海月神師法說)』의 「부화부순(夫和婦順)」에서는 “부화부순은 우리 도의 첫째가는 중지”이며, “남자는 한울이요 여자는 땅이니, 남녀가 화합치 못하면 천지가 막히고, 남녀가 화합하면 천지가 크게 화하리니, ‘부부가 곧 천지’란 이를 말한 것이니라”고 밝히고 있다.⁶⁾ 부부와 남녀의 화목이 동학의 근본이며, 부부의 화목이 바로 천지이고 도의 근본임을 밝힘으로써, 인간해방·여성해방이 동학의 핵심임을 천명한 것이다.

『해월신사법설』의 「대인접물(待人接物)」에서는 “내가 청주음을 지나다가 ‘서택순’의 집에서 그 며느리의 베 짜는 소리를 듣고 서군에게

⁶⁾ 夫和婦順吾道之第一宗旨也, …男乾女坤 男女不和則天地不塞 男女和合則天地泰和矣 夫婦即天地者 此之謂也(천주교중앙총부 1986, 149-150).

묻기를, ‘저 누가 베를 짜는 소리냐’하니, 서군이 대답하기를 ‘제 며느리가 베를 짠다’하는지라, 내가 또 묻기를 ‘그대의 며느리가 베 짜는 것이 참으로 그대의 며느리가 베 짜는 것인가’하니, 서군이 나의 말을 분간치 못하더라. 어찌 서군뿐이랴. 도인의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르지 말고 한울님이 강림하셨다 말하라”고 했다.⁷⁾ 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며느리도 한울님처럼 대하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노동을 천시하는 잘못된 태도를 고치기 위함이다(표영삼 2005, 130). 해월은 천시 받고 있는 여성인 며느리와 노동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천주직포설(天主織布說)’이다.

해월은 「부인수도(婦人修道)」에서 부인수도를 장려하는 이유에 대해 “부인은 한 집안의 주인이니라. 음식을 만들고, 의복을 짓고, 아이를 기르고, 손님을 대접하고, 제사를 받드는 일을 부인이 감당하니, 주부가 만일 정성 없이 음식을 갖추면 한울이 반드시 감응치 아니하는 것이요, 정성 없이 아이를 기르면 아이가 반드시 충실치 못하니, 부인 수도는 우리 도의 근본이니라. 이제로부터 부인 도통이 많이 나리라”며, 부인을 한 집안의 주인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동학의 도를 깨달은 여성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포교와 함께 여성해방에 대한 해월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일남구녀(一南九女)’를 비한 운이니, 지난 때에는 부인을 압박하였으나 지금 이 운을 당하여서는 부인 도통으로 사람 살리는 이가 많으리니, 이것은 사람이 다 어머니의 포태 속에서 나서 자라는 것과 같으니라.”⁸⁾ 해월은 이전까지는 여

7) 余過清州徐垞淳家 聞其子婦織布之聲 問徐君曰 「彼誰之織布之聲耶」 徐君對曰 「生之子婦織布也」 又問曰 「君之子婦織布 眞是君之子婦織布耶」 徐君不卡吾言矣 何獨徐君耶 道家人來 勿人來言 天主降臨言(천주교중앙총부 1986, 75).

8) 婦人家之主也 爲飲食 製衣服 育嬰兒 待賓 奉祀之役 婦人堪當矣 主婦若無誠而俱食則 天必不感應 無誠而育兒則兒必不充實 婦人修道吾道之大本也 自此以後婦人道通者多出矣…此一男九女而比之運也 過去之時婦人壓迫 當今此運 婦人道通 活人者亦多矣 此人皆是母之胞胎中生長者如也(천주교중앙총부 1986, 152)

성이 억압받았던 시대였으나 앞으로는 동학에 도통한 여성들에 의한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 이치는 사람이 모두 어머니의 포대 속에서 태어나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이치와 같다고 했다. 이는 동학이 ‘모정주의(maternalism)’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해월은 머지않은 미래 사회에는 남녀 동권이 이루어지고 여성능력이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부인도통으로 활인(活人)한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뜻한 것이다. 해월은 서구의 남녀평등사상의 영향과 전혀 무관하게 여성개화사상을 제창한 진정한 여성운동의 선험자(先驗者)라 하지 않을 수 없다(박용옥 2001, 128).”

수운 최제우에 의해 창도된 동학은 인간평등·신분철폐·여성해방의 가치 실현을 통해 ‘대동 평등’ 세상을 실천하려고 했으며,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실천되는 세상인 ‘모정사회’를 지향했다. 동학은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이른 시점에 근대성을 내장하고 있었으며, 미래사회의 모형인 ‘모정사회’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선진적이었다. 특히, 여성해방을 남성인 수운과 해월이 주장했다는 것은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서양은 남녀평등의 불모지였다. 18세기 루소는 “남성이 불공평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여성이 불평을 한다면 여성의 잘못이다. 이 차별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J.J. 루소 2011, 521)”라고 논변했다. 칸트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이며 타인 의존적”이어서 “남성이 자신들의 보호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Schroeder 1997, 287. 임화연 2004, 328에서 재인용). 이 외중에 영국의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1759~1797)는 여성으로서 여성의 교육적·사회적 평등을 주장했다. 18세기 조선사회에서도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과 강정일당(姜靜一堂, 1772~1832) 같은 여성들이 저술을 통해 남녀평등을 주장했다. 임윤지당은 “나는 비록 부인이지만, 하늘에서 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의 차

이가 없다(이영춘 2006, 149)”고 주장했고, 강정일당은 “비록 부인들이라도 큰 실천과 업적이 있으면 성인의 경지(박현숙 2004, 63)”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양에서 남성에 의한 여성해방이 주장된 것은 1869년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여성의 종속(The Subjection of Women)』 출간을 통해서였다. 이 책은 부인이었던 해리엇 테일러(Harriet Taylor Mill, 1807~1858)의 직접적인 영향 속에서 저술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1840년 이후 밀의 출판물은 해리엇과의 ‘합동작품’이었기 때문이다(앨리스 S. 로시 1986, 214). 서양사회에서 이 책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이 상식적 문제로 사회의 시야에 들어오기 전까지 남성에 의해 쓰인 독보적인 저작이었다.⁹⁾

3) 동학의 여성해방 실천

동학을 창도한 수운은 여성해방을 삶 속에서 실천했다. 수운은 득도 이후 자신의 여종을 머느리와 수양딸로 삼았고, 동학교도들은 “얇은 휘장을 치고 남녀가 뒤섞여서 흠어미와 흠아버가 가까이 하며 재물이 있든 없든 서로 돕기를 좋아”했다. 조선에서는 학문적·이론적 영역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 문제가 서서히 실천되었다.

동학농민전쟁은 주로 남성의 목소리와 행동만 남아있다. 그러나 동학의 신도이며 지주·소작관계에서 억압받았던 여성들도 전쟁의 주체였다. 직접적인 전쟁 주체로 참여한 기록들이 적지만 남아 있다.¹⁰⁾ 또한 동학 접주

⁹⁾ “『여성의 예속』이 출판된 지 10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여성의 지위에 관한 지적(知的) 분석과 성적(性的)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끌어내려는 호소로서는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남아 있다. 그런 종류의 책은 1869년 이전에는 출판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성의 예속』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작품으로서, 남성에 의해 쓰여진 유일한 작품으로서 특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앨리스 S. 로시 1986, 172).”

¹⁰⁾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권, 各地東學黨 征討에 관한 諸報告 二, 東學黨征討略

의 부인은 연좌제 대상자였으며, 반역죄인 취급을 받으며 문초와 고문을 당했다(박상란 2017b, 55; 박상란 2015, 11-12). 동학군의 후방부대, 연락 부대로서의 역할, 전쟁 패배이후 수습의 역할까지 담당했다(박상란 2015, 36-37). 즉, 전쟁과정에서 여성들은 반일반봉건(反日反封建) 과제를 수행한 주체였다.

이와 함께 당대 여성을 억누르는 근본적 모순의 철폐에도 나섰다. 그것은 동학농민군이 ‘폐정개혁안’에 제시한 ‘청춘과부 재가 허용’이었다. 이 당시 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청춘과부 재가 문제였다. “과부의 재가 자유는 사회적 원한의 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허용된 것이기도 했지만, 농민군에 참가했던 여성들이 싸워 얻어낸 측면도 있다(조정달 2008, 236).”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동학농민군은 “청춘과부는 개가(改嫁)를 허(許)할 사(事)”를 제시했다(吳知泳 1940, 127). 동학농민군은 동학교도와 백성들에게 가장 큰 폐단이 무엇인지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했고, 여성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것이다.

이런 요구는 ‘김홍집 친일내각’의 ‘갑오경장’에 담겨졌지만, 이내 후퇴해 버렸다. 과부가 개가를 하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이니, 누구도 개가를 해라 말라 강요하지 말고 자유의사에 맡기라는 ‘관문’을 내린 것이다(「關草存案」 1992[甲午 八月十日], 218-219). 조선시대 400여 년간 성리학적 규범에 의해 과부의 재혼이 금지된 상황에서, 재혼을 허가했으니 과부들은 재혼의 가부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런 고로 당시에 개가 허가 조치와 함께 개가를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처벌법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이다. 개가를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과 함께 과부들에게 적극적으로 개가를 강권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개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물며 10~20대 청춘과부

記(1895년 5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에게 개가가 더욱 어려웠다는 것은 당연하다. 뒤이어 박영효는 1895년 3월 10일 내무아문 훈시를 통해 “과부를 위협하여 개가시키는 짓을 금할 것”을 명했다.¹¹⁾ 청춘과부들이 개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 오히려 내무훈시로 재혼을 완전히 봉쇄해버린 것이다.

과부의 개가를 ‘자유’ 의사에 맡긴지 6년여가 흘러도 상황은 전혀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춘과부의 개가는 허용이 되었으나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민치현은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고, 고종이 재가를 하면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그 내용은 10~20대 과부들은 일반 혼례와 똑같이 하고, 30~40대는 재혼·삼혼예식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10~20대 과부들은 첫 결혼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고을 단위의 사회적 노력을 통해서 온 나라에 퍼지게 하면, 남편이 없어 슬퍼하는 여자도 없고, 아이가 없어 슬픈 여자도 없을 것이라고 상소한 것이다.¹²⁾ “이 상소문은 분명 균기처나 박영효의 재가강요·협박 금지 요구와 달리 ‘끝내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으면 꼭 뜻을 빼앗지 말고’ 또 ‘강요협박을 엄금하되, 실질적으로 ‘부모는 권하고 이웃은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영효의 본의는 과부의 재가 ‘자유’를 말하면서 ‘자유’의 이름으로 ‘부모와 이웃의 권고와 계몽’의 도덕적 의무까지 분쇄해버리는 데 있었던 것이다(황태연 2017a, 392).”

최종적으로 고종이 민치현이 “청한 대로 의정부와 중추원에서 품처하라고 명”함으로써 과부 재가문제는 진전될 수 있었다. 이렇듯 청춘과부의 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까지 청춘과부 재가문제가 여전히 지속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¹³⁾

11) 『高宗實錄』, 고종32(1895)년 3월 10일.

12) 『高宗實錄』, 고종37(1900)년 11월 30일.

5. 나가며: 동학과 여성해방

본격적으로 남성에 의해 인간평등에 기초한 남녀평등 주장은 동학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로부터 시작되었다. 수운은 신분해방과 남녀평등의 차원에서 자신의 여종을 며느리와 수양딸로 삼았다. 수운의 뒤를 이은 제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은 동학에 도통한 여성들에 의한 ‘후천개벽’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동학의 인간존중과 남녀평등의 사상은 ‘김홍집 친일내각이 신분철폐와 관녀 재가 허용 등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만든 원동력이었다.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은 지난한 여정이었고 수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또한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설득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수운의 뒤를 이은 해월은 부인수도를 장려하면서, “부인은 한 집안의 주인”이며, “부인 수도는 우리 도의 근본”이라고 밝혔다. 즉, 동학 수도의 근본은 부인의 수도이며, 앞으로 동학의 도를 깨달은 여성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조선사회에서 “지난 때에는 부인을 압박하였으나 지금 이 운을 당하여서는 부인 도통으로 사람 살리는 이”가 많을 것이며, 그 이유는 “사람이 다 어머니의 포태 속에서 나서 자라는 것”과 같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에 의해 앞으로의 세상은 ‘후천개벽’이 될 것이며, 억압받던 여성의 시대에서 ‘모정주의’ 세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다. 그 핵심은 어머니가 열 달 동안 포태에서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는 사랑을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후기 여성해방의 흐름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결합된 백성의 성장, 백성의 성장을 수용하여 소민을 보호하고 언론을 확대한 계몽군주, 공자철학을 갱신한 동네유자들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마침내 동학에

13) 1930년 『신여성(新女性)』 3월호에 “조선의 여성해방문제는 과부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다(김정인 2002, 202).

이르러 인간평등·신분철폐·여성해방의 사상으로 나타났다. 동학은 실천 속에서 여성해방의 구체성을 확보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철학의 일상적 실천, 인간불평등의 상징인 신분제를 철폐하려는 거대한 민란, 여성도 한울님이며 앞으로는 여성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여성해방의 가르침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파되도록 했다. 그래서 묵암(默菴) 이종일(李鍾一, 1858~1925)은 “우리나라 여성의 개화를 처음 터득케 한 것은 동학 사상”이며, 그 이유를 “동학사상은 곧 여성과 소아를 한울님같이 여기기 때문”이라고 회상한 것이다(이현희 2003, 87).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시대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뛰어넘지 못한 동학의 한계는 지적될 수밖에 없다. 신분철폐의 과도적 상황과 가부장적 현실 질서 속에서 구체적인 여성해방의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천·구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상과 현실의 간극이며,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동학의 시대적 한계라 하겠다. 그러나 동학이 뿌린 시대의 자양분은 천도교를 비롯한 여성운동으로 나타났으며, 조국의 독립과 계몽을 위한 힘으로 등장했다. 1919년 3·1운동의 중심은 천도교였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리로 나와 나라의 독립을 외쳤다. 당시 교도 수가 300만 명에 달했다는 점에서 동학의 뒤를 이은 천도교가 당대 백성들의 민심과 시대정신에 얼마나 공감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정주의에 의한 어머니의 사랑 같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동학의 이상은 일제의 병탄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제 동학의 여성해방사상을 21세기에 새롭게 갱신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는 방법일 것이다.

(집수 2018. 4. 5. 심사완료 5. 17. 게재확정 5. 25)

참고문헌

- 『關草存案』. 1992(甲午 八月十日). 關水草. 『各司謄錄(63)』.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 『高宗實錄』
- 『孟子』
- 『純祖實錄』
- 『書經』
- 『承政院日記』
- 『禮記』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권. 국사편찬위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 김경애. 2003. “동학의 여성관에 대한 재고찰.” 『한국사상사학』 20권.
- 김경애. 1984. “東學, 天道敎의 男女平等思想에 關한 研究: 經典·歷史書·機關誌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창간호.
- 金起田. 1928. “大神師 養女인 80老人과의 問答,” 『新人間』 9월호.
- 김도태. 1972(1948). 『徐載弼博士自敍傳』. 서울: 을유문화사
- 김미정. 2006. “동학·천도교의 여성관의 변화.” 『한국사학보』 제25호.
- 김양선. 2007. “탈근대·탈민족 담론과 페미니즘(문학) 연구: 경합과 교섭에 대한 비판적 읽기.” 『민족문화사연구』 33권.
- 김용덕. 1979. “여성운동 및 어린이운동의 창시자로서의 해월선생,” 『신인간』 370호.
- 김용휘. 2012. 『최제우의 철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용흠. 2006. “19세기 전반 世道政治의 형성과 政治運營.” 『한국사연구』 132.
- 김응조. 2005. 『수의당 주옥경』. 서울: 글나무.
- 김정인. 2002. “동학·동학농민전쟁과 여성.” 『동학연구』 제11집.
- 노길명. 2008. “개벽사상의 전개와 성격.” 『한국학연구』 28.
- 로시, 엘리스 S. 1986. “감성과 지성: 존 스튜어트 밀과 해리엇 테일러 밀의 이야기.”

- 존 스튜어트 밀 저·김예숙 역, 『여성의 예속』.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박상란. 2017a. “동학농민혁명담의 전승과 젠더.” 『동학학보』 42권.
- 박상란. 2017b. “금기된 과거사에 대한 여성의 기억과 의미: 여계(女系)전승 동학농민혁명담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44권.
- 박상란. 2015. “동학의 소설적 형상화와 문화적 의미: 동학군 아내의 문학적 재현양상과 의의.” 『동학학보』 36권.
- 박용옥. 2001. “동학의 남녀평등사상.”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서울: 지식산업사.
- 朴容玉. 1981. “東學의 男女平等思想.” 『歷史學報』 第91輯.
- 박이은실. 2010. “포스트페미니즘(들).” 『여성이론』 22권.
- 박현숙. 2004. “강정일당·성리학적 남녀평등론자.” 『여성문학연구』 11호.
- 버틀러, 주디스 지음, 조현준 옮김. 2008. 『젠더 트러블』. 파주: 문학동네.
-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1962a. “天道敎書: 第一編 水雲大神師.” 『아세아연구』 5권 1호.
-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1962b. “天道敎書: 第二編 海月神師.” 『아세아연구』 5권 2호.
- 안병욱. 1987. "19세기 민중의식의 성장과 민중운동: '향회'와 '민란'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1호.
- 양삼석. 2012. “수운 최제우의 남녀평등관,” 『민족사상』 제6권 제4호.
- 吳知泳. 1940. 『歷史小說 東學史』. 京城: 永昌書館.
- 柳永益. 1997. 『甲午更張研究』. 서울: 일조각.
- 柳馨遠. 1994(1770). “卷10 敎選之制 下-貢舉事目.” 『반계수록』. 서울: 명문당 (1982·1994).
- 윤조원. 2009. “페미니즘과 퀴어이론, 차이와 공존: 테레사 드 로레티스, 이브 세지윅, 주디스 버틀러를 중심으로.”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7권 1호.
- 이광래. 2007. 『해체주의와 그 이후』. 파주: 열린책들.
- 이영재. 2015. 『민(民)의 나라, 조선』. 파주: 태학사.
- 이영춘. 2014. “영·정조대의 문예부흥과 임윤지당.” 『역사와 현실』 91.

- 이유재·이상록. 2006. “프롤로그, 국경 넘는 일상사: 한국과 일본 일상사의 만남.” 『일상사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서울: 책과함께.
- 이태진. 2005. “민국이넘은 역사의 새로운 원동력.” 교수신문 기획.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서울: 푸른역사.
- 이현희 해제. 2003. 『묵암비망록(默庵備忘錄)』 권1(1898). 서울: 이우신서.
- 임화연. 2004.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칸트 윤리학.” 『철학논총』 35.
- 장세룡. 2002.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서양사론』 제82호.
- 정약용. 1989. “第七卷(續) 禮典·辨等.” 『牧民心書(IV)』. 서울: 창작과비평사.
- 조경달 지음. 박맹수 옮김. 2008. 『이단의 민중반란』. 서울: 역사비평사.
- 조국훈. 2017. “생명철학의 관점에서 본 동학의 여성관.” 『동학학보』 제44권.
- 조선정. 2014. “포스트페미니즘과 그 불만: 영미권 페미니즘 담론에 나타난 세대론과 역사쓰기.” 『한국여성학』 제30권 4호.
- 천주교중앙총부. 1986. 『神師聖師法說』. 서울: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 채길순. 2014. “구비 전승담으로 본 흥촌 동학농민혁명 전개 양상.” 『동학학보』 제37호.
- 최문형. 2005. “동학의 모성론(母性論)과 미래지향의 여성상.” 『동학연구』 19.
- 崔承熙 編. 1986. 『韓國思想史資料選集: 朝鮮後期篇』. 서울: 亞細亞文化社.
- 표영삼. 2004. 『동학 1: 수운의 삶과 생각』. 서울: 통나무.
- 표영삼. 2005. 『동학 2: 해월의 고난 역정』. 서울: 통나무.
- 황모희. 1998. “水雲 崔濟愚의 女性觀” 『동학연구』 3.
- 황태연. 2018.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파주: 청계.
- 황태연. 2017a.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파주: 청계.
- 황태연. 2017b.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파주: 청계.
- 황태연. 2016. “조선시대 국가공공성의 구조변동과 근대화: ‘조선민국’과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황태연 외.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변동』.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황태연. 2011. 『공자와 세계: 서양의 지식철학(하)』. 파주: 청계.
- 황현 지음, 김종익 옮김. 1994. 『오하기문』. 서울: 역사비평사.
- J. J. 루소 지음·정병희 옮김. 2011. 『에밀』. 서울: 동서문화사.

- Fogel, Josua A.. 1984. *Politics and Sinology: The Case of Naito Konan [1866-1934]*.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Jones, Eric I.. 1988. *Growth Recruiting: Economic Change in World History*. Oxford:
 Blackwell.
- Locke, John. 2009. *The First Treatise of Government [1689]*.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Neill, William H.. 1982. *The Pursuit of Power: Technology, Armed Force, and
 Society since A.D. 100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sterhammel, Jürgen. 1989. *Cbina und die Weltgesellschaft: Vom 18. Jabrbundert
 bis in unsere Zeit*. München: C. H. Bech'sche Verlagbuchhandlung.
- Schroeder, Hannelore, 1997. "Kant's Patriarchal Order." in Robin May Schott. ed.,
 Feminist Interpretations of Immanuel Kant. University Park: Penn State
 University Press.
- 內藤湖南. 2004. "包括的唐宋代觀(1922)." 礪波 護 편집. 『東洋文化史』. 東京:
 中央公論社

The Woman's Liberation Ideology of Donghak and Moderni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Linkage the
Liberation of Status and the Donghak Ideology

Kim Jong-wook

This article examines the flow of human equality and status elimin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is article traces the process of women's emancipation to see if the ideological power of modernization is inherent in Joseon society. Especially, in 1860, he traced the modernity connected with the flow of status liberation through the theory of woman's emancipation created by Suwoon Choi-jeewoo. The flow of women's emancipation in the late Joseon era is characterized by the growth of the people combined with socio-economic change and the enlightened monarch who protected the people, and the proliferating neighborhoods of Confucians who renewed the Confucius philosophy. Finally, Donghak appeared human equality, the elimination of the status, the idea of the liberation of women. The people of the late Joseon Dynasty caused revolt against the inequality caused by their status. In this flow, Donghak practiced the philosophy that every human being is equal. Donghak also spread to the people that the world of women will come. The appearance of a free and equitable people out of status is a criterion that separates the pre-modern period from the modern period.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ancipation come into view only after the era of status liberation has opened. At that point, Donghak symbolized modernity in that it asserted the status liberation through

human equality and the liberation of women connected with the status liberation.

key word: Donghak, Human Equality, Status Liberation, Woman's Emancipation, Modernity